

# 주안에게

##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6  
June 2018  
Vol.6 No.6

- 졸업의 달 특집
- 목자모임/주안에라이프
- 교육부 소식
- 목장 / 사역국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동심 속에 예수님 사랑을 심고...”



### ■ VBS(여름성경학교)

지난 8일과 9일(금-토), 20-22일(수-금)에 걸쳐 주안예교회 MP채플과 MP채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비록 이틀에 걸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를 위해서 담당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까지 몇 달간에 걸친 훈련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셨네(RESCUED BY JESUS)"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한평생 살아가며 예수님만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름으로,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준비하여 입고, 선생님들은 주제에 맞는 재미있는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을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는지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영화도 준비하고, 공작 놀이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이들의 음식 준비는 모두 학부모들의 몫이었습니다. 스파게티, 떡볶이와 오뎅, 김밥, 햄과 달걀 등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10면에 계속>

| 조근희 기자 |



▲ 여름방학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있게 가르치는 VBS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쫓긋 세우고 있다.

<사진: Katie Park 교사>



■ 목자모임

## “더 잘 섬기는 목자, 더 행복한 목장으로”

지난 6월 2일(토) MP채플 그리고 6월 9일(토) 벨리채플에서는 새벽 6시부터 리더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목자, 목자장, 작은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목장모임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목장모임을 그저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야고보서 2장)는 말씀처럼,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서로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3개월여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 목자와 목자장, 그리고 작은목자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은 여러 목자 목자장 작



은목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시면서 더욱 목장의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으로 섬겨주시길 권면하였습니다.

많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예정된 11시보다 한참 늦은 12시가 훌쩍 넘어 모임은 끝이 났지만, 이런 모임을 더욱 자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안에 성도들은 숫자에 신경쓰기보다는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며,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을 진정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저런 이유로 목장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목장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지 함께 듣고 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라이프

## “배움의 기쁨 뿌듯... 빨리 다음 학기 왔으면”

주안에라이프 중강식이 있던날, 때늦은 봄비가 밤새도록 내려 천지만물을 깨끗이 소생시켜 주는 것 같았다.

9시가 되자 어르신들은 손에 또 어깨에 첼로, 하프, 베드민턴 등 다양한 수업용품 등을 들고 신나서 들어오신다. 누가 그들을 노인이라고 하던가? 어르신들의 열심은 연세를 초월한 멋진 작품과 무대를 연출 하셨다. 여섯분의 첼로연주를 시작으로 바이블교실, 키보드, 하모니카의 찬조출연, "사랑합니다" 를 연주한 기타교실에는 90세를 바라보시는 분이 새롭게 기타를 배우셔서 무대연주까지 하시는 실력을 보여주셨다. 오토하프를 마지막 곡 연주로 "만남"을 다같이 합창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기쁨도 맛보았다. 또 80세가 넘으신 강사님의 건강댄스는 학생이 넘쳐나는 교실로 무대에서 댄스곡에 맞추어 댄스를 하시는데 화사한 80대 어르신들이 많았다. 그 어르신들의 지난날도 꿈꿨던 소녀시절이 있었고 희망과 용기로 절절되었던 청년시절이 있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편물반에서는 수줍은 소녀들처럼 예쁘게 뜨개질한 스웨터 조끼 모자 등 손으로 직접만든 작품들을 전시하시면서 너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쁘기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미술반의 미술작품들은 영상으로 한작품씩 보여주면서 한쪽벽을 가득채운 그림전시를 하여 주셔서 한작품씩 보게되었다. 지금 풀게티 뮤지움에서는 랩브란트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데 내눈에는 주안에라이프에서 그린 어르신들의 작품이 훨씬 더 맛있었다. 이 작품들을 세계적인 미술시장에 내놓아보면 어떨까? 생각만해도 모두 모두 행복할 것 같다. 또한 영어교실 베드민턴 스트레칭 바둑 컴퓨터 스마트폰교실 등 다양한 배움의 교실이 오픈되어 12주간 배움과 행복의 마무리가 되는 중강식

이 끝나고 그 유명한 "주안의 밥상"을받는 가장행복한시간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주안에라이프 음식이 최고로 맛있는 건강음식으로 대접해주는 교회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주안에라이프에 참석했던 교인과 타교인들 모두 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깊은 사랑과 너무 큰 섬김을 12주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안에교회와 목사님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가을학기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다짐하셨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축복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에놀러와

## “미니 운동회 · 바베큐 · 불꽃놀이 모두 오세요”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듯이 우리가 제2의 조국처럼 품담고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는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이 있다.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 부터 미국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을 기념하며 “독립기념일”을 제정한 것이다. 미국민들은 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야유회나 바베큐 를 즐기기도 하고 기념 퍼레이드와, 밤에는 각종 연주회가 열리기도 하며, 화려한 불꽃놀이로 축하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주안에교회는 이 뜻깊은날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안에 놀러와” 라는 타이틀로 전교인이 함께하는 운동회와 음악회 그리고 불꽃놀이 구경을 계획하고 있다.

장비가 갖추어진 실내 체육관과 야외운동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넓은 주차장을 보유



하고 있는 밸리채플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미니축구, 족구, 탁구, 베드민턴, 농구, 볼링, 골프, 줄다리기 등등의 종목이 밸리채플과 MP채플의 대결로 이루어지기에 더욱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동안 바쁜 시간에 쫓기어서 근육의 활동을 억제하고 계셨

던 분들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으며, 각종 야식의 향연인 먹거리 장터 또한 이 행사에서 빼놓을수 없는 코너로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을 돌게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길건너에 있는 “Shepherd Church” 에서 쏘아올리는 불꽃 놀이는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서 그 화려함을 뽐내면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거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마련하는 “주안에놀러와” 를 통하여서 주안에교회가 하나님과 말씀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내며 우리가 소속된 커뮤니티와도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길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권한다.

| 오희경 기자 |

■ 평신도훈련

## “말씀이 삶으로, 삶이 말씀으로... 100여명 참가 열의”



평신도사역훈련원의 제14기 주안에삶 훈련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훈련생들(왼쪽: 밸리채플, 오른쪽: MP채플 청년반)

■ 졸업 · 수료

## “고등부에 15명 졸업 비록 주일학교 수료 · 진급”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급년에 우리 주안에교회 교회학교를 잘 마치고 한 단계 높은 주일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50여명이 됩니다. 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EM, 청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이 15명,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22명, 유초등부를 마치고 중등부로 가는 학생

들이 18명입니다. 그동안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끊임 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어린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항상 즐겁고 쉬운 일만은 아닌데 가르침

에 잘 따르고 커운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책임감을 느끼는 일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니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잘 성장해준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시어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 나형철 기자 |

##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 ■ 목회자 칼럼/ 박현동 목사

#### 삶의 간절한 기대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의 이력서에 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자부심도 나름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께 진실한 사람이었다. 진실한 사람은 삶의 이중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을 빗대어 박쥐라는 표현을 쓴다. 새도 아닌 것이 쥐도 아닌 것이 때론 새처럼 때론 쥐처럼 그림에도 실상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삶의 이중성이 그에게는 없었다.

요즘 바울이 남겨놓은 흔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있다. 그의 흔적에서 진실함을 본다. 그의 진실함은 삶의 간절한 기대에서 나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그림을 몇 장 그려본 경험이 있다. 그림의 첫 출발은 밑그림이다. 밑그림 위에 덧칠해 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자신의 삶으로 덧칠해 가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한 마디로 그는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고난의 힘든 시간도 인내 할 수 있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덧칠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플 수 밖에 없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음에 아무리 작정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기대를 놓지 않는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간절한 기대와 그분의 기대가 어울려 멋진 한편의 그림이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



**기효숙 권사(MP)** 기효숙 권사님의 따님인 청년부 한나 자매가 칼폴리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따님의 교육을 위해 집까지 대학 옆으로 이사를 하며 따님의 교육을 후원한 권사님의 성원에 보답한 한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남성우/지아나 집사(MP)** 남성우, 지아나 집사님의 따님 율이 드디어 프리스쿨을 마치고 킨더가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주안에 교회와 나이가 동갑인 율(5살)이가 예쁘고 귀엽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나옵니다. 율아! 주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계속 기도할게!



**황금석, 황화진 집사(벨리)** 아주사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에이미 자매는 한국에서 6주간의 선교훈련을 끝마치고, 일년간 시리아 난민을 섬기러 중동지역으로 선교를 떠난다. 내년 8월에 돌아올 예정이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지난 6월초에 출발하였다. 에이미 자매는 황금석, 황화진 집사님의 둘째딸이다.



**안건우, 정지혜 성도(MP)** 안건우 형제와 정지혜 자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들 Joel 하준이가 어느새 세상과의 만남이 100일이 되었다. 정확히 6월 11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폴란폴란하고 의젓한 모습을 봐서는 더 성숙해? 보이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건강히 자랄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더욱 열심히 키우겠다고 안정 커플은 입을 모았다.



**김헬렌 집사(MP)** MP 5목장 김 헬렌집사. 김헬렌 집사님은 지난 6월 19일 치러진 LA한인타운 분할(현 한인타운의 60% 정도를 방글라데시 타운으로 가져가려는 LA의회 안건) 저지를 위한 시민연합 대표를 맡아, 한인타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투표현장에서 뛰고 달렸습니다. 지난 한달 이상을 생업을 거의 포기한채 많은 교회와 단체, 비즈니스 현장을 다니며 동참을 호소하고 마지막 투표일에는 나성열린문교회 투표소에서 자정이 넘도록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구자형 집사(벨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디렉터,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교수)가 지도하는 오케스트라 청소년 단원들의 제9회 봄 정기연주회가 지난 10일 벨리채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구자형(가운데) 디렉터가 헨리 신 지휘자를 소개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자의 색션별 악기 지도 등 매주 일요일 정기연습을 하고 있는 벨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오는 8월 오디션을 준비중이다. 문의: (213)458-4618



김지연 성도(MP) 코람데오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김지연 자매가 지난 6월 16일 장주성 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또하나의 가정이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에, 신부의 미모는 유난히도 돋보였었다. 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 드린다.

### ■ 유아세례/ 세례/ 입교자



6월 6일과 8일, 수요일/금요일 영성집회 중에 2018년 상반기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와 입교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자: 오경순, 유제니, 입교자: Matthew Yang, 유아세례자: 구하라, 오서현

### ■ 숨은 일꾼/ 이인범 장로(MP)

#### "신문에 실지 말아주세요"

“이인범 장로님이요? 그 분은 교회 사찰 장로님 아닌가요? 언제 교회를 와도 항상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인범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다.



교회에 문이 열려있을 때 와보면 이인범 장로님은 교회 어디에선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장로님은 교회사찰은 아니다. 전기와 에어컨, 히팅 라이선스를 가지고 건축일을 하는 컨트랙터이다.

이장로님의 교회사랑은 남다르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외치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생업을 위해 건축 일을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 전도이다. 그러니 사업적으로는 손해 보기 일쑤이다. 그래도 장로님의 마음은 늘 풍부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멕시코 SAN QUINTIN으로 봉사하러 가기를 내 집 드나들 듯 한다. 이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십 여 년 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교회에서 가려면 약 12시간정도 걸린다. 이곳을 장로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어떤 때에는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밤새 달려가서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여 두, 세 시간 눈을 붙이고 필요한 전기 공사를 비롯한 건축 일을 하루 종일 한다. 그리고 저녁에 출발하여 일요일 아침에 이곳으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보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이다.

선교지를 갈 때에도 그냥 가지 않는다. 가난한 현지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서 물품들을 도네이션을 받아 차에 한 가득 싣고 간다. “예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은 신문에 실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이인범 장로님과 부인인 이계순 권사님은 주안에 소문난 일꾼이다.

| 조성운 기자 |



말씀으로 자라는 빛의 자녀들...





■ EM Outing

"We Are EM"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The English ministry joined with a few future members and pastors (including our head pastor, Pastor Choi), taking a break from bible studies, sermons and small group gatherings to head to a local bowling alley, AMF's Montebello, to have fun and celebrate the EM. The entire alley rang with our cheers and laughter as our group, split into three teams, engaged in a furious battle. Many arms and even knees were put to the test as we bowled our way through three games, each team pushing the limits of their skills and energy. A few members valiantly fought to score above 50 points, while others easily surpassed 100. Both Pastor Choi as well as Ryan Kim (a recent high school graduate) managed to score well over 200 points (there may just be a promising bowling career looming on the horizon for at least one of our members!).

Now, while outings are mostly about great people, no outing would be complete without great food. We enjoyed dinner at Curry House in Monterey Park before we headed to the bowling alley, and after, in a haze of exhaustion and sweat, we decided on McDonald's for dessert. We ended the evening talking over soft serves and sundaes, just enjoying one another's company and marveling over some members' bowling prowess. While no one has yet decided to start a successful bowling career, we had a great time and our relationships continue to deepen. The ICCC English Ministry is moving towards a bright future with excitement and hope.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growth! **James Lee**



사진: 양영, 김진흥(벨리채플) 정인섭, Katie Park(MP채플)

■ 부모님 고맙습니다 · 고교졸업생들의 편지

They Were There

Looking back at my high school life, the entirety of it was a long and arduous process which was well worth it to go through. It might not have seem like it at the time, however, it was well rewarding. Through the hard times, and the fun, my parents were there for me through all of it. I want to thank them for helping me emotionally and monetarily. I didn't notice the gravity of their help until my high school career ended. I didn't realize that it would mean so much and would have so much positive effect on me. Both of their auditory and silent help really pushed me forward and although sometimes I didn't reach that goal and I failed at times, they were there to support me and help me prepare for the next goal down the road. Because of them, I was able to keep on walking and eventually I got through it all. Truly, I would not have gotten through high school and all of its hardships without my parents, so I would like to thank them for it. They kept me going and they even kept me focused on God as well, helping me realize that even with all this effort, God still had to remain my top priority. **Justin Park**



You Still Love Me

To Mom and Dad,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me. Although I take everything for granted whether it's the clothes you buy me or the food you make for me.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m truly grateful to have parents like you. As I start a new chapter in my life and as I continue my walk with God, I promise I'll become a man who lives his life solely for God and a son that you can be proud of. I'm still immature young, and I make dumb decisions all the time, but you still choose to love me and pray for me no matter what situation I am in and I'm so thankful for that.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I love you.



**Matthew Yang**

■ 졸업생 명단

**Valley Chapel:** Elim Choi, Ellen Kim, Matthew Yang, David Chang, Angelina Lim, Joshua Lee, Yujin Song

**MP Chapel:** Ryan Kim, Eric Kwon, Isaac Han, Daniel Park, Justin Park, Daniel Chung, Yehju Park, Justin Ma

■ 13년 학교생활 마친 딸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사랑하는 딸 예수야~ 먼저 고등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난 13년동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느라 수고가 많았다. 지난 13년동안 너와 만들었던 많은 추억들중에서 엄마가 가장 잊지 못하고 그리워할 추억은..

이제 더 이상은 등교 라이드가 필요 없어서 일까. 처음 너를 유치원에 보내며 차안에서 그 짧은 시간동안 엄마가 13년동안 매일매일 예수이름으로 기도해 준 기도!! "예수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주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라"로 시작해서 "예수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주는 예수이름으로 보전받아라"까지 약 30여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이름으로 명령기도하면, 그 기도제목이 끝날 때마다 아주 맛있는 과자를 받아먹듯이 "

아멘" "아멘"했던 하나님의 딸, 예수~♡ 그 '아멘'의 중간 열매인가, 그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지난 1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등교했던 개근소녀 박예주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예주를 이토록 잘 자라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별 문제없이 사춘기를 지내다니 무지무지 고맙단다.

올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이면 이제 집을 떠나 대학에 가는 예수에게 엄마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매일매일 너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예수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주의 대학생활은 행복해라"를 시작으로 엄마는 계속해서 예수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며 기도할게!! 예주의 졸업을 다시한번 축하하며 예수안에서 사랑해~♡♡♡ | 박경숙 권사(MP) |



##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큰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 (창세기 12:1-2)

친정엄마의 갑작스런 소천과 너무나 치열하고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제 삶에 쉼을 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계획만을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언어의 높은 장벽과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녹록치 않았지만 만남의 축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왔고 학교에서 Diane 윤집사님을 만나게 되어 주안에 교회로 순전히 인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가 교회에 왔을 때 여호와시리즈 첫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신인숙 집사·벨리>



한국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저희 부부였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온 미국이었지만 낯선 타국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최혁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박상근 안수집사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단메세지를 통해 하나하나 당신을 알게 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도 저희 부부는 자리에 남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강단메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9목장에 인도받아 주일날 함께 모여 포럼하고 삶을 나누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목자님의 인도 아래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부르셨고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속에 있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지는 30여년이 지났지만 어느 특정지역 교회에 적을두고 꾸준히 예배를 드린적이 없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가진건 시간밖에 없었음에도, 매주 정해진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주중행사 각종훈련 등 거기에 따른 교인관계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거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고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하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만 충실하면 그만이지 말 많은 교회생활이나 교인관계 따위는 제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 했습니다.

그러던 얼마전 저에게는 희한한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주안예교회로 제가 인도되는 우연같은 일 말입니다. 첫날의 설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주안에교회

<지바정숙 성도·MP>



말씀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제마음을 점점 묶어오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말씀이었으면 전 아마도 예전에 그래왔듯이 그날이 마지막 방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안예교회”는 분명 다른 교회와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주안예교회에서 성도들의 말씀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섬기시는 모든 섬김의 주인공도 항상 “하나님”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교회라는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에게 예배받고, 찬양받아 마땅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 처음으로 “교회등록”이라는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안예교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일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일에 설레이는 마음이 앞장서게 되었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 ■ 알고 계셨나요?

#### 할렐루야와 알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교회용어가 ‘할렐루야’다. 할렐루야는 예배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인사말로도 쓰인다. 히브리어인 할렐루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다. ‘찬양하다’라는 뜻의 동사 ‘힐렐(hillel)’의 명령형인 ‘할렐루(hallelu)’와 하나님이란 뜻의 ‘야훼(Yahweh)’를 축약한 ‘야(yah)’를 합친 말이다. ‘야훼(하나님)를 찬양하라’란 뜻이다. 하지만 ‘알렐루야’가 할렐루야를 대신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활절 칸타타로 쓰이는 찬양곡이나 복음성가 가사에서 종종 알

렐루야를 본다. 같은 오라토리오지만 헨델의 메시아 합창은 할렐루야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알렐루야로 부른다.

할렐루야와 알렐루야가 혼용되는 데는 히브리어인 할렐루야를 신약시대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생긴 문제다.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인 할렐루야에 쓰인 강한 ‘ㅎ’ 발음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강하게

발음을 하라고 심표를 뒤집어 놓은 표시(‘)를 써서 ‘알렐루이아(‘, ‘allelouia)’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격음을 나타내는 부호가 없다. 이런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할렐루야가 알렐루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둘은 의미상 차이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다. 다만 라틴어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가톨릭은 알렐루야를 공식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신교는 원래 발음인 ‘할렐루야’를 교회의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주안에삶 간증

"습관처럼 하던 신앙생활에 생명이"

주안에삶 1 권 '거듭남' 부터 3 권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21주를 시간에 쫓기면서 끝을 냈다. 특히 3 권은 교회가 멀어져 더 바쁜 마음으로 매주 참석을 했습니다.



윤혜란 권사(MP)

주안에삶을 하면서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제목들이 한주 한주 배우고 나누면서 나에게 어려움과 배움과 회개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긴 신앙생활 속에 습관처럼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주안에삶을 하면서 말씀으로 다가왔고 회개로 이어지기를 거듭했습니다.

특히 성찬과 세례를 배우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 바리새인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은 눈물로 회개를 시키기도 하셨다. 기록한 독서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과 내 삶에 적용하는 습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기쁨으로 재미있게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인도자님과 테이블 식구들에게 많은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아쉬움이 가득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웃으며 진솔한 나눔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으며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주적교회'와 '지역교회'를 배우면서는 많은 공감을 했으며 나의 첫 이민 생활에 지역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낯선 곳의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감사로 이끌

어 주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든 편재해 계시고 나의 두려움 앞에서는 임재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내 가슴으로 정리 할 수 있게 된것은 주안에교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되어버린 나의 신앙생활에 한걸음, 한걸음씩 발을 떼고 보니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보니 내 삶 전부 하나님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지시길 바라신다는 확신과 감사로 앞도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나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함께 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졸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이영진 인도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웃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테이블 분위기를 밝게 해 주셨습니다. 함께 졸업하게된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 기대되는 저녁, 맛있는 간식이 저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고픈 동기생들입니다. 주안에삶 1, 2, 3권을 통하여 좀더 성숙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청기지로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 가겠습니다.

"지식에서 삶으로"

주안에삶의 모든 과정을 은혜로 잘 마칠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의 힘으로는 세번의 7주 교육 과정의 시간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철스 집사(MP)

주안에삶 1권과 2권도 유익하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지만 특별히 주안에삶 3권은 실질적인 나의 삶과 신앙의 많은 부분을 새로이 배우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로써 가져야 할 바른 인식, 성도로써 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청지기 삶은 성도로써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 보고 교회와 세상에 살가운데 헤갈리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 학습과 나눔을 통하여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안에삶의 교육 과정이 형식적 교회의 행사나 교인으로써 조건적 이수 과정이라 이수 하는것이 아니며 그동안에 학습하고 깨달은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지식으로 남기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고 응용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이땅에 사는동안 신실히 이행하며 기록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기 소망하고 다짐 합니다. 이런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전능하고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VBS · 1면서 계속> 교회 권사님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아이들의 간식과 음료수,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하고 각종 심부름도 기쁨으로 감당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지만 나중에 자라나면 독립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 치는 세상으로 나가야하는 어린이들에게 변함없

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어른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한 살짜리 꼬마부터 5학년 어린이까지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린이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 고맙습니다. THANK YOU, JESUS!'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J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나 형철 Cell: 213.999.2967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일 서비스

## 주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 ■ 벨리 12목장

벨리 12목장은 주안에서 하나됨의 본을 이루어가는 작은 공동체로서 전도사 한분, 장로님 한분, 권사님 여섯분 등 20여명의 목장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병현 집사님 내외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 아름다운 목장의 모임이 매주 열리고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섬김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삶에 적용시키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좋다고하



장이나 만큼 아쉬움을 뒤로하고 12 목장이 주안에서 하나됨을 감사드리며 예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임용자 기자 |

시기에, 옛말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는 것 아닌가하여, 어느 권사님 맥에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더니, 벨리 12목장에 매우 만족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효자효녀들, 또 가족간의 사랑과 주안에서 하나됨을 깊이 이루고있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찬양과 감사



### ■ 벨리 봉사국

벨리채플에는 집보다는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사역국 국장님이 계신다. 바로 봉사국을 맡고 계시는 김현숙 권사님 이시다. 물론 노재덕 팀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의 팀원들이 한가족처럼 서로 위하고 돕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울러서, 목소리나는 살림꾼의 저력을 바탕으로, 주방의 청결과 정리정돈을 첫번째 미션으로 여기며, 그 넓은 주방의 구석구석까지도 김현숙 국장님의 손길이 닿지않는곳은 없다. 또한 뛰어난 손맛을 자랑하는 음식솜씨는, 봉사국의 존재감을 더욱 크게 만들어감과 동시에 매월 마지막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가 늘어가는 이 유가 되기도 한다.

봉사국의 사역은 주로 주방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성도님들의 위생과 입맛에 초점을 맞추어 섬기고 있으며, 한끼의 식사를 위해서는 장보기부터 재료손질까지의 기나긴 준비과정과 주방의 마지막 뒷정리까지 빈틈없는 섬세함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사역국임에 틀림이 없지만 벨리채플의 봉사국 팀원들은 불편함보다는 예수님을 대하는 기쁨과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역을 모범적으로 잘 감당해 가고 있다. 특별히 팀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편하게 이끌어 주시는 김현숙 국장님이 계시기에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언어가 은혜에 은혜를 더 해가고 있다고 한다.

봉사국 봉사자들의 수고가 거둬져 갈수록 하늘에 준비되어질 위로도 커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말없이 옮기는 그 발걸음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 오희경 기자 |

## 귀한 손님 모시는 차... 정성과 최선



### ■ MP 차량국

플러튼 채플과 LA채플이 MP채플로 합쳐지면서 차량봉사로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차량국을 소개합니다.

국장님이신 오찬국 안수집사님은 매주 금요일이면 교회주장에서 주일 아침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에 쾌적한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 운전할 차량의 안밖을 깨끗히 세차하신다고 합니다. 어쩌다 다른 부서에서 차량을 사용할 때면, 어김없이 차량 사용후에는 반드시 세차 부탁을 하시므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시도록 마음을 쓰신다고 합니다.

팀장으로 섬기시는 정인섭 안수집사님은 얼마전에 사시면서 매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플러튼 지역의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팀원으로 섬기시는 이찬기 장로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 연세를 뒤로하고 현재 연습기간으로 잘 배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 차량국의 최우선 순위로써 매 주일 아침마다 일일이 성도님 맥으로 모시러 갔다가 다시 맥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역을 책임감있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 차량국에게 주안에 성도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량국에서 함께 섬기고 싶으신 젊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박경숙 기자 |



##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2)

지난달에 이어 이번 호에는 SSI(Supplemental Social Security Income) 를 받는 분들로 부터 주로 받는 질문들과 문제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알고계신대로 SSI 혜택은 근로 기간중 내 가 납부한 세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은퇴 연금 (SSA retirement)과 같은 나의 권리가 아닌, 미국 정부가 수혜자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주는 현금 혜택 welfare 프로그램 입니다. 그럼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혜자들의 책임이 따르며 지켜야 되는 몇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여행: SSI를 받는 분들이 장기 한국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 혜택이 끊어진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SSI는 한달 단위로 혜택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달이상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체류한 경우 혜택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혜택에 대한 반환, 외국 여행과 체류에 대한 경비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하며 후속조치로 SSI 자체가 종료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체류나 잦은 해외 여행은 자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입이나 재산의 변동: SSA 사무실로 부터 가끔 수혜자들에게 최근 몇달 치의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계좌는 가장 민감하게 수입이나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규칙적으로 계좌에 입금될 경우 이를 수입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혜자 중 혜택을 신청할 당시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으나 이후 이를 처분했을 경우 그리고 이 차액을 계좌에

### SSI

<해외여행·재산변동 주의할 점>

노재덕 집사



입금하였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증빙 서류를 SSA 사무실에서 요구할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런 모든 변동 사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필히 보고해야 하는 것 들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 혜택뿐만 아니라 메디칼 마저 끊기는 문제를 미리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3) SSI 혜택의 사용: SSI 혜택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 기 위해 지불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다. 이를 유용이나 목적의도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용도로 지출 한다면 이는 불법용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4) 내가 받고 있는 SSI 액수가 다른 수혜자들이 받는 액수에 비해 적습니다. SSA에서 취해지는 모든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혜택 액수에 대한 결정은 이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 할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가 자녀의 집일 경우 일 것입니다. 받는 SSI의 액수에는 주택 거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는 곳이 자녀의주택이라면 이 주택 거주 비용이 삭감 되게 됩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렌트를 지불한다는 확인 편지를 자녀로 부터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이사를 하시는 경우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혜자에게 보낸편지가 다시 돌려올 경우 이는 거주 불분명으로 혜택이 당장 중단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요. 그럼으로 다른 이와의 단 순비교는 더 큰 의문만 만들게 되므로 SSA사무실에 직접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주안에” 2018년 7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 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애스더,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